무책임·무능력·무도덕…'3無' 조선대 이사회

총장 선출 방안 눈치보며 미루기 급급 … 혼란 초래

일부 이사 욕설·폭행 … 구성원에 '갑질' 도 넘어

예산 의결권·교직원 임면권 등 막강 … 책임 떠넘겨

조선대 이사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학 구성원 위에 군림하려 드는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70년을 맞는 대학 위상에 걸맞게 장기적인 리더십으로 비전 있는 대학을 만들어갈 총장 선출 방안조차 책임있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학 구성원 위에 군림하려는 이사=27일 조선대에 따르면 개방이사인 A씨는 지난 24일 오후 이사장실에서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부총장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다. 부총장은 이날 총장을 대신해 이사회 전 이사장실을 찾아 이사들에게 상정된 안건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러 갔다가 이같은 일을 겪었다.

A 이사는 "×새끼야,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했고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부총장이 이사회에 낸 민원서도 무시했다. A이사는 피해를 입은 부총장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는가 하면, 총학생회가 진위 파악 등에 나서면서 다음날 학내게시판에 '이사를 사임하면서'라는 글을 올리고 사과의 뜻과 사임 의사를 내비쳤다.

A이사는 지난해에도 법인 직원을 폭행,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대학 내부에서는 이사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구성원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책임 회피…눈치만 보는 이사회=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을 명확하게 결정짓지 못한 채 다음달 이사회로 미뤘다.

교수들의 해외 연수·출장과 방학이 본격화되는 6월 중순 이후가 되면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는 점, 현 총장 임기만료(9월 23일)를 감안하면 이전까지 총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대학 교수평의회가 최근 차기 총장 선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사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조치다.

이사회는 그러나 '구성원들의 투표로 2인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방안'만 결정했다. 이사회는 직선제 틀을 유지할 지, 선거인단 형태의 간선제로 할 지는 다음달로 미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장 선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교수·직원·학생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이사회 본연의 역할임에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 기간을 거치기는 커녕, 결정을 미루면서 구성원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권한은 막강…책임은 모른 척=조선대 이사회는 조선대와 조선이공대, 부속 중·고등학교, 병원·치대병원 등 주요 기관의 예산 심의·의결권과 교직원 임면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학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한 개방이사 3명(황금추 동광건설 회장·김창훈 전 시민의소리 대표·이광호 동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김용억 동신대 교수,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이효복 전 조대 공대 교수, 김현정 글로벌에너지&리소시스 대표이사, 강현욱 이사장 등 8명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대학 안팎에서는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히려 구 재단 측, 이사장 측 등으로 성향이 갈리면서 안건마다 의견일치를 보는데 애로가 많다는 게 대학 내 평가다.

올 들어 교직원 급여가 동결되고 지난해 정원 500여명 감축에 따른 재정난이 조만간 현실화되는데도, 재정 확충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대학 안팎에서는 내년 2월 25일로 예정된 이사회 임원 임기에 맞춰 자질 검증을 통해 대학 발전에 적임자들로 이사들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25 해짐 18:51 달뜸 23:04 달짐 09:08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

새벽한때 안개가 끼지만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2/19	보 성	맑음	-3/17
목 포	맑음	3/14	순 천	맑음	4/19
여 수	맑음	5/15	영 광	맑음	-1/17
나 주	맑음	-2/19	진 도	맑음	0/16
완 도	맑음	2/17	전 주	맑음	1/19
구 례	맑음	-2/19	군 산	맑음	0/16
강 진	맑음	-1/17	남 원	맑음	-3/19
해 남	맑음	-3/17	흑산도	맑음	5/14
장 성	맑음	-3/1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0.5	남~남서	0.5~1.0
	먼바다	남서~서	0.5~1.0	남~남서	0.5~1.5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먼바다(동)	서~북서	1.0~1.5	남서~서	1.0~2.0
	먼바다(서)	서~북서	1.0~1.5	남서~서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4:53	10:03
	16:56	22:11
여수	11:37	05:33
	00:00	17:33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낮음

◇주간 날씨

29(화)	30(수)	31(목)	4/1(금)	2(토)	3(일)	4(월)
6/19	8/21	9/17	11/18	8/19	7/18	7/17

5·18 해외 첫 시위 '시카고'서 열렸다

5월26일 신군부 규탄 집회

베를린 집회보다 사흘 빨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지지한 해외교포들의 첫 집회가 독일 베를린이 아닌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것으로 36년 만에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1980년 5월 26일 미국 시카고 한인사회가 연 '신군부 규탄대회'가 5·18 관련 재외 교포의 첫 집회라고 재단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해 5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5·18 동포성토대회'가 최초의 해외 한인 5·18 관련 시위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와 정문영 비상임연구원은 지난 17일 시카고에서 1980년 5월 당시 미주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조광동씨 등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미주 한국일보는 당시 17일자 호외와 19~21일자 지면을 통해 신군부의 명령에 의해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시민 학살을 자행한 사실을 교포 사회에 전했다. 신군부는 5·18을 보도한 것에 대해 한국일보 본사에 압력을 행사했고, 조씨는 편집국장직을 사임했다고 한다.

당시 광주 소식을 접한 미주 호남향우회와 유학생을 주축으로 교민 600여명이 시카고 알바니팍에 모여 군부 성토대회를 열고 도심을 행진했다.

시카고 한인 사회의 5·18 관련 집회 소식은 지난 1980년 5월 26~27일자 미주 한국일보 지면에도 소개됐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1980년 당시 해외 동포들의 관련 행적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시 신문 자료를 디지털화해 아카이브에 보관하고, 오는 5월 9일부터 5·18문화센터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왜곡 대책위, 31일 '교과서 왜곡' 교육부 항의 방문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5·18민주화운동 축소·왜곡과 관련해 5·18 역사왜곡대책위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다.

27일 광주시와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영 차관과 면담한다.

대책위는 이날 면담에서 올해 일선 학교에 보급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전량 회수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까지 사용했던 구 교과서를 재보급하고 5·18을 축소·왜곡해 기술한 새 교과서를 본래대로 바로잡으라고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90m 대형 '5월 벽화' 그리기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지난 26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과 숭모루 사이 벽면에 길이 90m에 이르는 대형 '5월 벽화'를 그리고 있다. 옛 전남도청, 무등산 등이 담긴 '5월 벽화'는 지난해 1차로 조성된 이후 이날 고교생 100여명의 참여로 최종 완성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롯데 월드컵점 불법전대 방치… 市 감사하라"

광주경실련, 감사원에 청구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27일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 광주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롯데쇼핑㈜와 체결한 대부계약서에는 일반 재산에 대한 전대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대부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롯데쇼핑의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해 부당이득을 올리도록 했고, 지난 2013년 불법전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해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위탁관리 주체인 시체육회를 통해 사용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하고 롯데쇼핑 측에 특혜를 줘 시에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을 20년간 빌려쓰면서 매년 45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내는 조건으로 광주시와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광주시 감사에서 승인받은 면적(9289㎡)을 초과한 1만3190㎡를 전대해 연간 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시인한 바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보성 벌교서 소나무재선충병 첫 발생

전남도 나무 이동 제한 등 방제

보성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병해 산림청, 전남도 등 관계기관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지금까지 전남도내에서는 여수·순천·광양·무안 등 4개 시·군에서만 발견됐었다.

전남도는 27일 "보성 벌교 농공단지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 8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긴급 초동조치에 나서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보성군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성군 재선충병 발생 정보 공유 및 예찰·방제대책 논의 ▲감염 시기·원인·경로 파악 등 중앙 역학조사 계획 ▲긴급 방제를 위한 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정문)
전대 후문/후문 2분 !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원룸 6개 , 투룸 2개)
4층 (주택) 올 주택
(방 3개 ,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융 1억5천 보 1억5천 /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사무실 및 오피상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융자 → 26억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좋음)
010-7384-7800

(주) 대신경매 법 률 경 매
(특수물건 추천)
1. 동구 학동 (토 340평,건 636평) (지하)
◈ 남광주 시장 지하 ◈ 평수 최대규모
(볼링장, 나이트클럽, 호프집 등등 가능)
※ 대출 50%가능 (실 투자 : 3억)
감정가 17억3천 → 최저가 6억2천
2. 광산구 운남동 (토 70평,건186평) (근린주택)
◈ 1층 상가 (마트) 2층 주택
◈ 광주 운남동 우체국 부근 (코너자리)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3. 서구 쌍촌동 (토 90평 , 건 364평) (숙박시설)
◈ 1층~5층 총룸 37개, 운천역 3분거리
◈ 달방 수익 약 900만 가능
◈ 대출 약 70%가능 (실투자 2억)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5억2천만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 주변 아파트단지 ,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5.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6백 → 최저가 1억8천
수익성 상가 (주택)
1. 북구 중흥동 (토 72평, 건 36평)
※ 중흥 3동주민센터 부근 , 2~3m 포장도로 접
감정가 1억3천8백 → 최저가 1억3천8백
2. 동구 산수동 (토 42평,건25평)
※ 토지 평당 150만원
단층주택 , 다용도실 약 6평 별도있음
감정가 6천8백만 → 최저가 6천8백만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 1층~2층 상가 ,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2.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토지 추천
1.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6백 → 최저가 1억8천
2. 서구 세하동 (198평)
◈ 세동마을 주변 위치 , 주위 는 주택 및 전,답 혼재
◈ 본건 차량 접근 가능 , 3m 포장도로 접
◈ 법정 지상권 성립
감정가 1억9천2백 → 최저가 1억9천2백
010-6834-4800 010-6832-97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